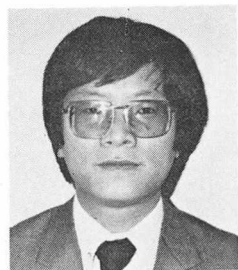


# 환절기 돼지질병 예방 대책



최 정 업  
(기축위생연구소 연구관)

## 1. 머리말

모든 일에 있어서 한 걸음 앞을 내다 볼 수 있는 슬기는 경영의 맥을 풀어 줄 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도 여유를 보일 수 있게 해서 좋다. 여름이 되자 벌써 가을을 생각하고, 환절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각종 질병을 미리 대비하는 것은 양돈인에게도 꼭 필요한 일이다.

한국의 여름은 돼지들에게 너무나 잔인했을지도 모른다. 폭폭 찌는 더위에 몸은 지치고, 1년에 두번이상 치러야 하는 분만의 고통과 더불어 계절따라 겪어야 하는 모기, 파리, 나방 등 계절의 벌레들은 정말 성가신 존재들이 있으며, 게다가 병까지 옮기기까지 하였다.

이제 풀벌레 소리듣는 시원한 가을 돼지들은 여름내내 지쳤던 긴장이 풀리고 식욕은 동하는데 밤낮의 기온차는 또한번 양돈인의 마음을 가다듬게 한다 환절기에 이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 2. 본론

### 가. 여름의 후유증

#### (1) 온도

돼지의 생리적인 면을 고려해 볼때 가장 안

락한 기온은 돼지 일령과 습도 및 공기의 흐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표1), 30도를 넘는 여름은 이들에게 너무 덥다.

이러한 결과는 재발정, 유산, 발정지연, 후보돈의 성성숙 지연, 분만시 공태돈 발견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더위에 지내던 돼지가 하루의 기온이 크게 변하는 환절기에 들어 오면 체열의 발산이 많고 에너지의 소모가 증가되며 몸의 유지를 위해서 사료를 10-20%와 낭비하고 발육은 뒤떨어져 생산성이 현저하게 저하한다.

또한, 축사내의 부유세균 진에 등의 작은 입자가 기관까지 흡입되어 온도 변화와 상승해서 호흡기계 질환의 다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

#### (2) 질병

국내에서 발생하는 질병중 가을에 가장 많이 겪는 것은 모돈의 유사산과 웅돈의 불임증일 것으로 생각된다.

여름에는 모기(작은 빨간집모기 *culex tritaeniorhynchus*)에 의해 일본뇌염이 전파되어 돼지는 물론 사람과 말에 심한 질병을 일으킨다. 어린 일령의 돼지에는 신경증상을 일으키지만, 여름기간 동안 임신중인 모돈에 감염하여 환절기인 가을에 많은 유사산 경우를 체험하게 된다.

또한, 웅돈에 감염하면 정자생산 공장인 돼

지 고환이 염증으로 파괴되며, 이로인한 번식 장애 즉 불임증이 있게 된다.

표 1. 돼지의 적합온도(C.T. Whitte more)

체중(kg)	적합온도(°C)	사람의 체감온도(안락)
10 이하	26-30	옷을 안 입어도 안락함
10-20	22-26	팬티, 내의 정도
20-50	18-22	셔츠, 바지 정도
50-100모돈	16-20	외투없이도 안락

나. 환절기에 발생하는 질병

환절기라 함은 절기가 바뀌는 시기이며, 밤낮의 일교차가 큰 가을의 문턱을 주로 가르킨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돼지의 질병은 대부분 어떤 질병이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특히, 환절기에 계절적 발생을 보이는 질병에는 호흡기 질병을 우선 손꼽을 수 있다. 즉, 돼지 인플루엔자(Swine influenza), 돼지 유행성폐렴(Swine enzootic pneumonia), 출혈성 패혈증(Pasteurellosis), 흉막폐염(Swine pleuropneumonia) 등의 질병이 예상된다. 그외에도 계절성을 보이는 질병들로는 돼지 파보바이러스, 콕시듐 돈적리와 부전각화증을 들 수 있다.

(1) 돼지 인플루엔자(Swine influenza)

돼지의 급성호흡기병으로 전염성이 크고 기관지폐렴이 특징인 이병은 우리나라에서의 발생 확인은 되지 않고 있으나 발생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질병이다. 주로 늦가을부터 초겨울에 심한 계절 변화로 인해 발생한다.

질병의 원인체는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이며, 돼지 인플루엔자균(Hemo philussuis)이 동시에 감염되면 전형적인 임상이나타난다.

질병의 증세는 한 양돈장에 거의 동시에 (1-2사이)에 발생하며 고열, 식욕감퇴, 쇠약과

더불어 한곳에 모여 서로 겹쳐 누우면서 운동을 싫어한다. 특이한 복식호흡과 기침, 호흡곤란이 눈에 보인다.

돼지의 질병은 일생에 여러번 반복하여 감염될 수 있다. 치료법은 없으며, 일반적인 위생관리에 신경을 쓰고 돈사내부를 건조하고 따뜻하게 하여 준다.

(2) 돼지 유행성 폐렴(Swine enzootic pneumonia)

돼지의 전염성 호흡기병으로 만성폐렴이 특징이다. 발병율은 높으나 폐사율은 낮으며 계절, 품종, 연령에 직접적 상관관계는 없지만 전염성이 강해 널리 발생하고 밀사, 다두사육 및 온도차가 심하면 악화된다. 이병은 특히 위축성비염과 혼합감염이 많다.

병원체는 마이코플라스마(Mycoplasma hyopneumonia)이며, 국내에서는 1964년 최초 확인된 이래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병든 돼지는 오랫동안 기침 또는 재치기를 하면서 병원균을 배출하고, 대부분 접촉에 의한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며 교미에 의해서도 감염한다.

이 병에 걸린 돼지가 식욕은 좋으나 발육이 늦어 사료효율과 증체율이 떨어져 90kg에 도달하는 일수가 한달가량 늦어진다.

예방 및 치료제로는 테트라사이클린(옥시 또는 클로르), 타이로신, 스피라마이신, 클로람페니콜, 사이오페니콜 등을 이유전에 주당 1~2회 투여하므로써 이 발병율을 낮출수 있다.

(3) 부전각화증

가을에서 봄철에 걸쳐 7-20주령의 자돈 및 육성돈에서 많이 발생되는데, 사료성분중의 칼슘 함량이 적어(1.3%이하) 소화관내 지방소화가 감퇴되어 발생하거나 급성장기의 자

돈이 아연 및 필수지방산인 리놀레인산 결핍 시 발생하며, 피부병소(사지복부, 엉덩이, 꼬리부위, 안면주위 등 피부발진 및 비후증, 각화, 갈회색 탁지형성) 식욕감퇴와 성장지연을 초래한다.

치료는 피부에 아연화연고를 발라주거나, 황산아연 및 탄산아연(15% 수용액)을 4-5 일 간격으로 2회 살포한다.

#### (4)출혈성 패혈증(Pasteurellusis)

*P.hemolytica*와 *P. multocida*에 의해 일으키는 병으로 출혈성 패혈증과 폐렴이 특징이다. 수송, 기온의 급변, 보균돈 구입 및 불량한 사양관리에 의해 발생한다.

세계적으로 발생되며, 우리나라에서도 발생되고 있다. 주로 2-5개월령의 어린돼지에 피해를 주며, 대개 만성 결과를 취한다.

주요증세는 기침이 있고 열이 높으며, 대개 발육 장애를 일으키고 위축돈이 된다.

예방은 사양관리를 개선시키고, 새로 구입한 돼지는 격리 관찰에 주의함과 동시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 (5)돼지 파보바이러스 감염증

연중 발생하나 7-9월에 유행기이므로 8-10월에 분만되는 특히 초산돈에서 유사산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며, 일본뇌염에 의한 피해 시기와 중복된다.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감염된 돼지는 임신돈의 태아 이외에는 증세를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율이 높다.

예방은 종부 2-4주전까지 1-2회 백신을 실시한다.

#### (6)콕시듐증

주로 늦여름과 초가을에 가장 많이 발병하여 6-15일령의 자돈(특히 7일령)에서 50-75%의 발병율을 보인다.

주요증상은 쇠약하고 거친 피모를 가지며 수양성이 황색의 고약한 설사를 한다. 심하게 감염되면 소장 전면의 점막이 벗겨지며, 점액성 카타르가 현저하게 보인다.

주요 피해는 발육저하이며, 죽는 일은 거의 없으나 합병증으로 죽을 수도 있다.

예방과 치료는 축사와 기구를 철저히 소독하고, 돼지를 따뜻하게 보온하여 설파제나 항생제를 투여해 준다.

#### (7)돈적리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돈적리이지만, 늦여름과 가을에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7일령과 2주령에서 많이 발병하고, 혈액이나 점액이 섞인 회황색의 설사를 하지만 탈수는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돼지를 구입한후 종종 발병이 시작된다. 일단 이병이 발생된 돈사에서 이병을 없애기 곤란하므로 끈기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주요 경제적 피해는 사료효율이 저하되고 출하시까지 2-6주간 발육이 지연된다.

예방은 새로 구입한 돼지의 격리 및 검역, 밀사방지, 일시구입 및 일시출하를 하고, 예방적으로는 항생제(타이로신, 스피라마이신) 등을 음수 또는 사료에 혼합하여 투여한다.

### 3. 겨울 질병에 대한 대비

우리나라는 가을이 무척 짧기 때문에 가을은 곧 겨울 월동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바이러스성 질병은 치료가 안되고 면역형성기간이 필요하며 겨울에 많이 발생한다.

이들 중 주요한 바이러스성 질병으로는 돼지전염성 위장염, 돼지콜레라, 돼지인플루엔

자, 오제스키병 등을 손꼽을 수가 있고, 세균성 질병에는 가을에 이어 호흡기성 질병이 또한 발생할 수가 있다.

국내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질병들은 대부분 백신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백신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면 된다. 그러나 백신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완비된 상태에서 제대로의 효능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 보온관리와 창문 밀폐로 인한 각종 불리한 환경에 신경을 써서 건강한 겨울을 보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 4. 맺음말

대부분의 질병은 연중 발생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은 4계절이 뚜렷한 지역에서는 계

절마다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질병들이 있다. 따라서 계절이 특성에 맞게 질병을 미리 대비하는 것은 양축가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가을은 긴 겨울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질병의 관리에 힘써 전체적으로 볼때 ①축사 위생관리(보온, 소독, 환기) ②백신접종(주로 바이러스성 질병) ③예방치료(주로 세균성 질병) ④구충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축사의 위생관리라고 보여지며, 한마리 한마리 질병에 얽매이지 말고 전체적인 질병관리와 질병이 들어 오기전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또한, 유사한 질병이 발생되고 있는 양돈장에서는 철저히 원인을 구명하고 큰 안목에서의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 동물약품도매전문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30년 전통의 판매업소  
가축용 예방약, 치료제, 소독제등 일체총판  
주야 전화상담환영 (질병문의 및 판매업소 개설상담)  
지방주문 환영 (신속하고 정확한 우송)



**협성가축약품**  
\* 동물약품도매전문 \*

〒 131 서울·동대문구 제기1동 654  
(오스카극장 앞)

본사 967-8779, 964-4870  
청량리영업소 965-9778